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Korea



발행일 2020년 11월 1일

발행인 김동만

편집인 김선영

등록번호 울산중,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김은희

글 김민정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1-1

전화 051.636.1210

www.ggad.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DREAM

04—05

NOW HRD

나의 멘토, 나의 멘티는 누구?

리버스멘토링 킥오프 워크숍 개최

06—07

HRD 사용법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토대 마련

숙련기술장려사업

08—11

HRD 현장사용법

2020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

2019 기능한국인

(주)이너트론 조학래 대표

12—13

채용의 정석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소통 강화,

한국공항공사

함께해 DREAM

14—17

미래로(路) 인생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국무총리상 수상자

의상디자인 직종 장명주 선수

18—19

생생 꿈지도

자격증으로

내 인생의 디딤돌을 쌓아가며

20—21

신박한 자격

섬유와 의복 공정에 관한 자격,

섬유기사 vs 의류기사

약속해 DREAM

22—25

상생과 협력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주)우시산

26—29

똑똑 여행

고래와 신화의 터전,

울산 남구로의 여행

30—31

셀프 매니지먼트

체온 1°C가 면역력을 좌우한다

32—33

취업에 직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연근무제가 불러온 변화와

지원책 관련 정보

HRD DREAM

34—37

돌아온 팀플전

능력개발기획부

리멤버 카드를 통한 직업가치관 찾기 도전

38—39

인싸 책방

나를 숨 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

40—41

당신의 청렴지수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청렴한국’의 일상화

42—43

HRD 뉴스

44

독자후기

나는 기술로 꿈을 펼친 숙련기술 스타다!

(주)이너트론의 경쟁력은 지식재산경영에 있습니다.

구성원의 약 40%가 연구원이며 2009년부터는 지식재산(IP)

전담 인력을 구성해 체계적인 기술 관리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IP 경영을 통해 제5회 전국지식재산경영인대회에서 ‘스타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죠.

2020년 대한민국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로서 기술 개발을 넘어 차세대 기술인의 꿈을 지원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스타 — 스타 기술인



2020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
2019년 기능한국인

(주)이너트론 조 학 래 대표

이달의 기능한국인 및 스타기술인 제도

‘이달의 기능한국인’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숙련기술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을 매월 한 명씩 선정하는 제도다.

한편,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는 자신만의 성공경로를 개척한 숙련기술인의 롤 모델로서

다양한 숙련기술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제도다.



나의 멘토, 나의 멘티는 누구?

리버스멘토링 킷오프 워크숍 개최



공단 내 밀레니얼 세대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공단은 젊은 세대가 경영진의 멘토가 되는 리버스 멘토링 제도를 도입했다.
젊은 세대의 문화가 경영진에게 이식되고, 이것이 다시 젊은 세대에 미치는
피드백 효과를 기대하며 새로운 시도에 나선 것.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멘토 — 멘티가 한자리에 모여 성공을 다짐한
리버스멘토링 킷오프 워크숍 현장을 전한다.

지난 10월 13일, 울산 본부 2층에서 리버스멘토링 킷오프 워크숍이 열렸다. 운영에 앞서 신입사원이 멘토(Mentor), 경영진이 멘티(Mentee)가 되는 새로운 시도에 각각 24명, 6명의 구성원이 최종 선발됐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4명의 멘토와 1명의 멘티로 구성된 총 6개의 팀 매칭이 공개됐다.

‘과연 나의 멘토, 나의 멘티는 누구?’ 스크린에 멘티가 우선 공개되고 차례로 멘토를 공개했다.

‘거꾸로’라는 뜻의 리버스(Reverse) 멘토링이기
에 멘티에 최유경 감사, 허대만 기획운영이사, 김양현 능력개발이사, 우봉우 능력평가이사, 김영동 총무국장, 최상건 경기지사장 등(임원진 및 1급 상당의 경영진)이 배치됐고, 멘토로 울산 본부를 비롯해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경북동부지사, 경기지사, 광주지역본부, 제주지사, 충북지사 등 전국 지부지사의 신입사원(임직 3년 미만의 젊은 세대)이 배치됐다. 서로 이끌고



따르던 위치를 새롭게 정의하여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의 다양성과 가치를 알아가도록 했다.

팀 구성이 확정된 후에는 Ice Breaking 및 팀 빌딩이 이어졌다.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군 신조어 시험 <2020 트렌드 능력고사>와 서로의 협업지수를 높이는 게임 <쑥쑥 올라가라! 파스타 탐 쑥가!>로 6개 팀은 너나할 것 없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단시간에 소통 에너지를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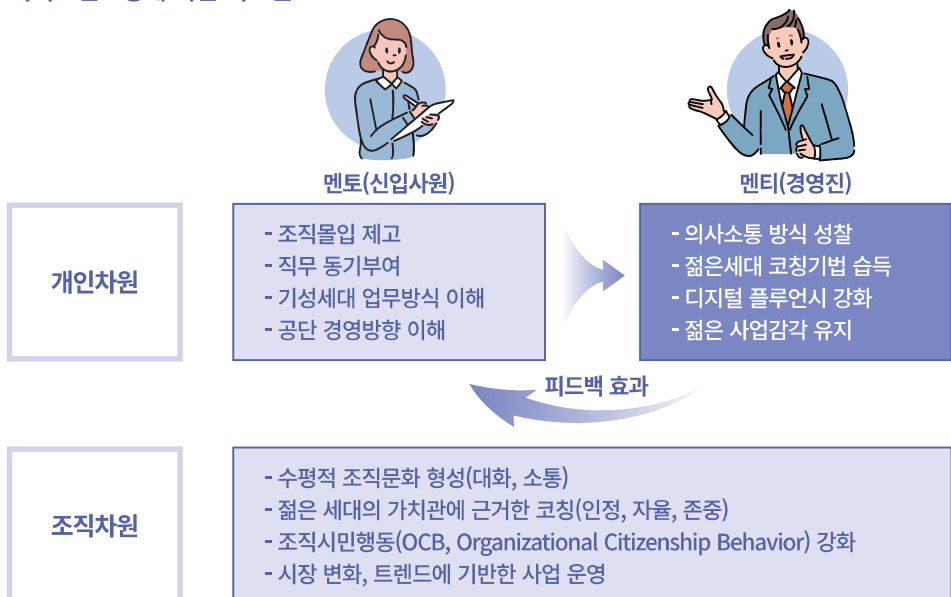
이어 팀별로 둘러앉아 다양한 영역(체험, 나눔, 학습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누며 앞으로 3개월간 어떠한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높일지를 계획했고, 팀명 및 실천서약서 작성, 사진 촬영 등으로 다시 한번 결속력을 다졌다.

한편, 앞서 진행한 Ice Breaking 및 팀 빌딩 1등 팀에 대해서는 소정의 추가 활동비가 지급되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다. 이제 출발점에 선 이들의 활동이 조직의 수평적인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리버스멘토링 제도란?

일반적 멘토링에 ‘거꾸로’라는 뜻의 리버스(Reverse)를 매칭한 단어로 신입직원 2~3명이 경영진의 멘토가 되어 3개월간 자유롭게 소통하고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과 트렌드 등을 공유하는 제도다. 한 예로, 구찌(GUCCI)는 기존 중년 브랜드 이미지에서 벗어나 It's Gucci = It's Cool과 같은 의미로 통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로 변신했다. 이 비결에는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통해 디자인과 유통 채널을 혁신적으로 바꾼 리버스 멘토링이 있었다.

리버스멘토링에 따른 목표는?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토대 마련 숙련기술장려사업



사업소개

숙련기술장려사업이란, 다음의 다섯 가지 목적을 지닌다.

-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 습득 장려
- 숙련기술의 향상 촉진
-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향상



사업구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및 우대

- 대한민국명장 선정 및 우대
-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및 우대
- 숙련기술전수자 선정 및 지원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 계속종사장려금 지원



숙련기술장려 우대품토 조성

- 기능한국인 발굴 및 홍보
- 숙련기술(인) 우대품토 조성 홍보
- 청소년 직업진로 지도
- 숙련기술인 종합포털(마이스터넷) 운영
- 장려사업 조사·연구
- 직업능력개발의 달 행사



숙련기술인 저변 확대

- 예비숙련기술인 숙련기술 전수
- 숙련기술전수 멘토링 운영
- 중소기업 및 근로자 숙련기술 전수
- 사업내자격검정 지원



숙련기술 수준 향상

-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현황

대한민국 명장

누계 **652**명



현장에서 오랜 경험(15년 이상)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로,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자

(단위 : 명)

1986~2016	2017	2018	2019	2020
615	11	7	6	13

우수숙련기술자

누계 **489**명



산업 현장에서 생산 업무에 종사(7년 이상 경력)한 자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

(단위 : 명)

2011~2016	2017	2018	2019	2020
271	47	66	59	46

숙련기술전수자

누계 **130**명



보존 가치가 있는 숙련기술이 세대를 거쳐 계승될 수 있도록 대상 직종 및 전수자(15년 이상), 전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단위 : 명)

1995~2016	2017	2018	2019	2020
122	1	2	1	4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누계 **76**업체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 촉진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중에서 선정

(단위 : 개)

2011~2016	2017	2018	2019	2020
68	1	2	1	4

기능한국인

누계 **163**명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실무 숙련기술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숙련기술자를 대상으로 숙련기술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숙련기술자 우대풍토 조성,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선정된 자

매월 1명씩 선정,
(2006년 8월~2020년 10월, '20. 10월 기준)

대한민국 숙련기술인의 미래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2020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 2019 기능한국인
(주)이너트론 조학래 대표



조학래 대표는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강소기업의 대표이자, 숙련기술인의 현재와 미래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2019년 기능한국인이자 2020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로 기술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를 위해 두 발과 마음으로 뛰는 그를 만나 보았다.

세계적 수준의 유무선 통신기기 분야 강소기업

인천광역시 송도에 자리 잡은 (주)이너트론(이하 이너트론)의 사옥은 위풍당당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방문하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신진작가들을 위한 작은 갤러리, 향긋한 커피 향이 감도는 사내카페 그리고 ‘퇴근할 때 인사하지 않습니다.’, ‘휴가에는 사유가 없습니다.’라는 큼직한 배너였다. 이너트론이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를 운영하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솟구치는 순간이다. 이너트론은 조학래 대표가 한창 벤처 붐이 일 때 직장생활을 마무리한 후, 2002년에 세운 통신장비 연구·개발·제조 회사다. 106명에 달하는 직원 중에서 R&D 인력만 48여 명, 직원의 절반 정도가 연구개발에 매진한다는 사실은 강소기업으로서 이 회사의 지향점이 어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기술을 가진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성장시켜온 이너트론은 유무선 통신기기 분야의 최강자로 꼽힌다. 5세대(5G) 통합형 멀티플렉스 장비를 개발, 수출하고 있다. 100% 수입이었던 디지털 무선마이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다. 일본 등지에서 수입해오던 다이아몬드 촉매제(슬러리)와 반도체 부품인 형광막을 국산화해 발광 다이오드(LED) 패키지를 제조하는 대기업에 납품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110건의 국내외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너트론이 글로벌 기업 고객사로부터 끊임없는 러브 콜과 신뢰를 받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기술력에 있다.

당시 창업에 뛰어든 나이가 31살.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였지만,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너털웃음을 짓는 조 대표는 이 모든 성과를 창업 초기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 온 연구원들과 직원들에게 돌린다. 큼직한 배너 속 문구는 그런 직원들의 노고를 대변하는 회사의 철칙일 터. 사업 초기 시절, 연구원들과 새벽까지 일하면서 피자과 치킨을 주로 시켜 먹으며 동고동락했던 순간은 그가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는 추억의 한 조각이다.



지속가능한 인재육성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조학래 대표는 창업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성장과 인재양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남동공단에서 벗어나 이곳 송도에 자리를 잡으면서 직원들이 일하는 근무환경에 무엇보다 신경을 쓴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기업문화,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절감했기에 더욱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복리후생과 연봉 수준도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중소기업 입사를 망설이는 이유 1위로 ‘장시간 근무’를 꼽는 걸 봤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상사들 눈치를 보며 출퇴근하는 문화 때문이겠죠. 그런 경직된 문화를 없애고자 노력했고, 사무실 막내부터 자유롭게 퇴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또 요즘 세대들에게는 일하는 환경도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역량 있는 인재들이 입사하도록 해 회사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경영인으로서 조 대표의 마인드는 업무 만족도 향상은 물론 구성원들이 사내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속가능한 인재육성을 위해 임직원들의 학업과 연구개발비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일학습병행 우수참여기업으로 이름을 올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친화강소기업 등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조 대표는 대학에 연구기자재를 기부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다.





스타기술인이 들려주는 성공 메시지

조 대표는 지난해 150번째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고서 올해는 2020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로서 색다른 행보를 시작했다. 스타기술인이란, 열정과 도전으로 자신만의 성공경로를 개척한 숙련기술인의 롤 모델(Role Model)로서 국민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언변과 이미지를 갖춘 자를 뽑는 제도로, 조 대표는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면접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2020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로 선발되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이나 진로강연 등을 꾸준히 해오던 중에 스타기술인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스타기술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제 이야기가 좀 더 생생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했죠.(웃음)”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축소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회사에 초대해 직업체험의 기회를 주고 진로강연 또한 쉬지 않았다.

“선진국이라고 믿어왔던 미주와 유럽의 수많은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임금이 저렴한 나라로 생산 공장을 옮겼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펜데믹 위기에서 더욱 고통 받고, 경제 회복도 더욱 어려워진 것입니다. 제조업과 기술에 기반을 둔 나라들은 반대로 위기에서 남보다 빠르게 탈출할 기회가 주어졌죠.”

조 대표는 공무원과 의사, 판사가 꼭 필요한 직업이듯 우리나라 제조산업을 지탱하는 뿌리기업들 또한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고 몇 번이고 다짐하듯 말했다.

“기술 안에서도 큰 꿈을 펼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더 잘 되어 제 꿈을 실현해야 합니다. 제가 이룬 꿈이 기술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또 다른 꿈이 될테니까요! 18년을 꾸준히 기술력에 매진해 직원들과 함께 이너트론을 세계적 수준의 유무선 통신기기 분야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 만큼 2025년에는 글로벌기업들의 변함없는 신뢰 속에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는 여전히 해외영업을 다니고, 기술 개발에 열의를 지닌 실무자로 바쁘게 살고 있다. 이너트론의 미래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언제나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조학래 대표에게 미래란 뛰어난 인재, 우수한 기술인이 지어 올리는 견고하고 탄탄한 희망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⑧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소통 강화, 한국공항공사

특화된 블라인드 채용과정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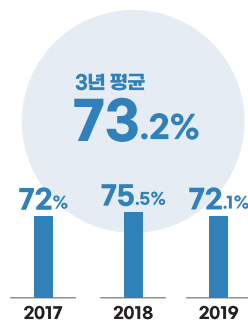
- 고스펙자 위주의 필기 응시기회 부여 재조정 필요
- 출제방향 및 면접방식 다각화 필요
- 피드백 절차 마련 필요

추진 내용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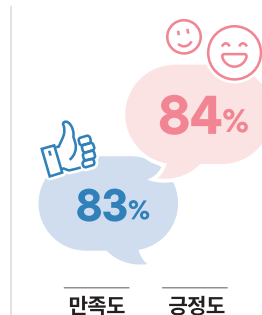
채용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 직무설명자료 대상 확대 및 내용 보완 필요	· 경쟁률 상위 분야 서류전형 배수 확대	· 전문분야 100% 외부 출제전문기관 위탁 · 필기전형 점수 및 합격 커트라인 공개	· (BP) AI(인공지능) 면접 신규도입 등 5단계 면접 시행

성과 및 성공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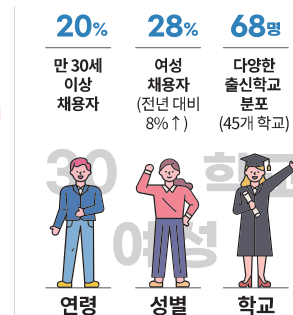
■ NCS 채용 절차 만족도



■ 블라인드 채용 만족도 (2년 평균)



■ 신규 입사자 다양성



향후 발전 방안

■ 면접 직무역량 관찰 확대 필요

- 면접배수 및 직무평가 확대

■ 증빙서류 제출안내 강화 필요

- 학력 등 증빙서류 면접 후 제출 유도
- 오기제 사례 공개 등 지원자 실수 최소화 유도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한 변화

‘고스펙자는
우수하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난 채용



다양한 경험을
실무에 활용할
기회!



김 재 현 과장
한국공항공사 인사부



민 경 원 사원(5급)
한국공항공사 인사부

Q ——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큰 장점은?

A —— 고스펙자는 우수하다(똑똑하다, 성실하다)는 일종의 심리적 오류(편견)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직무역량에 온전히 집중하여 채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Q ——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평가한다면?

A —— 블라인드 채용은 실제로 해당 직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지원자 모두에게 좋은 채용방식입니다. 학문으로서 얻은 지식 외에 다양한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을 통해 배운 경험들이 실무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속 시원한 대안을 원해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Q&A

Q —— 교육사항 기재 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기관명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A ——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기관명을 기재해도 됩니다.
출신 학교명만 블라인드 처리해 주세요.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총 8차례에 걸쳐 2019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를 연재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NCS 기반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앞장섭니다.

미래로(路) 인생

한 깨해 DREAM

글 김민정 사진 김주찬

미래로
인생

未來路

아
날
미

오
다
래

길
로



기술, 세대를 이어 빛을 받하다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국무총리상 수상자
(의상디자인 직종)

은주패션
김재근 지도교사, 장명주 선수

공업 도시 울산에서
‘의상디자인’으로만 48년,
기술 전문만 20여 년인
김재근 우수숙련기술자와
지난해부터 의상디자인에 뛰어들어
가파른 속도로 그 뒤를 잇는 제자, 장명주 선수.
울산광역시 대표로 출전한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장명주 선수가 금메달 획득에 이어
종합 2위로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
이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옷 만드는 일에 온 생을 쏟은 스승과
옷 만드는 일로 또 다른 인생을 써나갈 제자의 삶.
세대를 잇는 두 기술인의 이야기를 전한다.



Q ——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국무총리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 다 수많은 분으로부터 축하를 받으셨겠어요.

장명주 선수 대회 마치고 나니 긴장감이 풀려서 푹 쉬었습니다.(웃음) 경기 결과를 듣고서 저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로부터 옷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습시다.

김재근 지도교사 이틀 동안 전화기에 불났습시다.(웃음)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부터 주변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었지요. 2006년도부터 약 20년간 선수들을 교육해오면서 아쉽게도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에 그쳤는데, 올해 금메달과 국무총리상 두 개를 한꺼번에 받았으니 얼마나 경사인가요.

Q —— 장명주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장명주 선수 선생님을 뵈기 전까지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는 줄 몰랐습시다. 문화센터에서 홈패션 강의를 듣다가 ‘이건 취미 생활밖에 안 되겠구나. 자격증에 도전해야겠다.’ 생각해서 규방 공예를 함께 배운 지인을 통해 울산여성회관 김재근 선생님을 알게 됐죠. 처음에는 양장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김재근 지도교사 매년 양장기능사 합격률이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첫 도전에 필기와 실기를 한 번에 합격했으니 잘한 거지요. 그러다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명주 씨도 자격증만 공부하지 말고, 경기대회 나가보는 게 어때?”라고 하니 본인도 해보겠다고 해요. 그렇게 지도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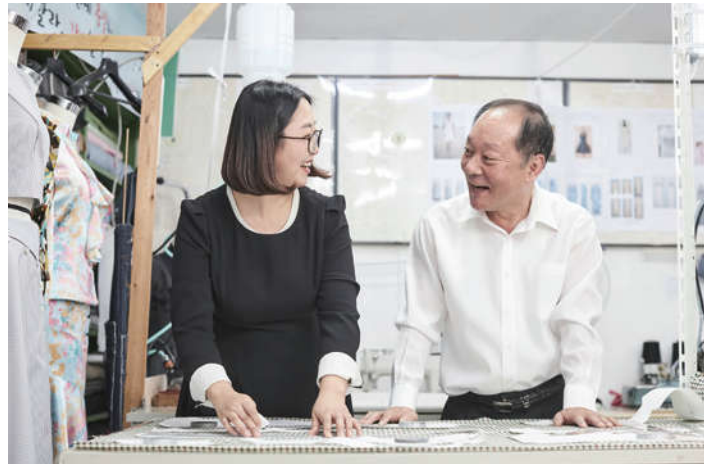
Q ——— 오랜 시간,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를 해오셨으니 선수의 기량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을 듯합니다.

김재근 지도교사 솜씨를 보고 ‘제법 한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습시다. 칭찬을 듣고 나면 더 잘하기도 하지만, 이유 없이 느슨해지기도 하거든요. 저도 선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메달’에 대해서도 부담을 주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살짝 기대는 했습니다.(웃음)

Q ——— 이번 대회 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김재근 지도교사 매일 ‘오늘은 이것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고민하면서 이 문에 들어옵니다. 6~7년 전 대회 과제까지 다 수집해두었거든요. 그걸 또 하나하나 해답을 알려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선수들 스스로 과제를 풀도록 하고, 모르는 부분은 물어가면서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니 어떤 과제를 봐도 당황할 것이 없지요.

장명주 선수 선생님 지도 아래 주 6일 하루 12시간씩 준비했습니다. 과제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고, 3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줄이는 연습



도 했고요. 첫 출전이었던 2019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으니, 이번 대회를 제대로 준비하자고 생각했죠.

Q ——— 의상디자인 직종 과제는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김재근 지도교사 전국기능경기대회 과제는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출제합니다. 그중에서 한 달 전 3개 과제를 뽑고, 당일엔 1개 과제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번에는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만드는 과제였습니다. 1과제 드레이핑-2과제 스케치-3과제 패턴 설계-4과제 의상 제작이었는데 시간 안에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쉽게 말해 시간을 맞추려면 ‘태풍 맞은 옷’이 될 정도의 난도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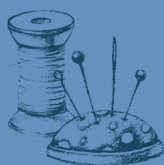
Q ——— 선수 입장에서 왜 까다로운 과제였겠네요. 그날 경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1

성실해야 한다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일념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 진득함이 필요하다.

의상디자인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장명주 선수 많이 긴장했습니다.(웃음) 첫날에 1~4과제 모두 진행되었거든요. 다음날에 이어서 4과제를 하고, 셋째 날 최종 완성해서 제출해야 했어요. 그동안 연습한 그대로만 하자고 계속 되뇌며 작업했고, 모든 과제를 ‘시간 안에’ 제대로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김재근 지도교사 과제를 빠르게 해낸다고 해서 1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장명주 선수는 마지막에 다림질까지 완벽하게 해냈어요. 시간을 잘 활용한 거지요. 대회를 앞두고 ‘시간 관리’를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Q — 전국기능경기대회 일반부 참가선수로서 10~20대 선수들보다는 연령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기술인으로서 ‘늦은 선택’은 아니라고 하셨지요?

김재근 지도교사 그렇지요. 저는 의상디자인 길만 48

년째 걷고 있습니다. 맞춤복을 만들다가 교육으로 길을 바꾼 후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가 되었지요. 그때 내 나이 마흔여덟이었어요. 나이도 나이지만, 남자가 옷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온 집안이 다 반대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죠. 기술은 평생 직업입니다.

장명주 선수 앞으로 패션디자인산업기사부터 의류기술사까지 꾸준히 자격을 취득할 겁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대학원에도 진학할 예정입니다. 대회에서 수상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Q — 장명주 선수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의상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장명주 선수 ‘내가 이걸 완성했다’라는 그 뿌듯함이 정말 크거든요. 홈패션을 정말 어릴 때부터 즐겼고, 그 기억을 계속 갖고 있다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후 들어선 길이에요. 저에게 의상디자인은 옷 만드는 즐거움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김재근 지도교사 젊었을 때도 지금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지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의상디자인 직종 우수숙련기술자에 이어 울산지역 최고 장인에 선정되고, 이렇게 제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까지 하니 모든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세대 기술 전수에 힘쓸 때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심사와 강의를 도맡고 기술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2

재능이 있어야 한다

의상디자인은 손재주도 있어야 한다. 손기술로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3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우승한다고 해서 옷을 잘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한 계단씩 꾸준히 성장해 기초가 튼튼한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

자격증으로 ————— 내 인생의 ————— 장유정 이스트소프트

디딤돌을 쌓아가며

너무나 아찔했던 면접에서의 기억

처음 자격증의 필요성을 느낀 건 내 생애 첫 최종면접 자리였다. ‘면접’은 나의 강점을 숫자로, 서류로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자리였다. 약점을 숨기랴, 강점을 어필하랴 손바닥의 땀으로 정장 바지가 축축해질 때 즈음이었다.

“이력서에 자격증 취득 내용이 없는데, 자격증 공부는 따로 안 하셨나요?”

사실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지루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뛰는 것을 좋아했던 나의 성향상 공모전이나 인턴 경험은 많아도 자격증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

“저는 자격증 취득보다는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턴이나 공모전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경험한 것들이 입사 후 실무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고작 종이 한 장짜리 자격증보다 경험으로 얻은 내 스펙에 잔뜩 자만하고 있을 때였다. 나만의 이유로 멋지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면접관의 차가운 대답 속에서 나는 결국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은 ‘나만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회사는 지원자의 전공지식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죠? 기업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업무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자격증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판단하고 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원자의 말대로 봉사로 얻은 소통 능력, 인턴 경험으로 얻은 적극성, 학생회를 통한 리더십만으로 우리가 전공지식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면접을 보고 난 후 자격증 취득은 나의 업무 지식을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이자, 나아갈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실무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싶어졌다.



필요한 자격 선별과 취득, 이어진 취업 성공

일단 지원하고 싶은 분야와 자격증을 매칭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나는 임베디드시스템을 전공해서 IT 분야에 취업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먼저 취득하기로 했다. 정보처리기사는 IT 분야에 필요한 지식을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통신 과목(2020년 이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니 관심 가는 세부 분야가 생겼다.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보안이었다. 데이터베이스 자격증인 ‘SQLD’, 운영체제 자격증인 ‘리눅스’, 보안 분야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를 파고들었다.

기존에는 상반기, 하반기 채용 시즌이라고 하면 무작정 좋은 기업, 적당히 전공에 맞는 기업에 지원했다. 그러나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바로 ‘직군’이었다. 내가 결정한 분야는 바로 ‘보안 기술 엔지니어’였다. 예전에는 ‘회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억지로 만들었지만,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지면서 진심을 담은 지원 동기가 생겼다. 준비해왔던 것들이 실무에 필요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답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나는 ‘알약’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회사인 이스트소프트의 엔지니어로 입사하게 되었다.

회사와 나의 능력을 동시에 증명해준 자격증

입사 후 생각지도 못했던 자격증의 새로운 용도를 깨달았다. ‘자격증은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라는 것을 배웠던 면접 때처럼, 자격증은 곧 우리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였다. 여러 백신 소프

트웨어 회사가 경쟁하는 보안 분야에서 고객사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가 ‘엔지니어의 능력’이었다. 고객사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엔지니어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엔지니어인 우리는 이름과 자격증을 나열해서 작성했고 이는 영업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관련 기업에서는 네트워크 자격증이 있는 엔지니어가 업무를 담당할 것을 원했고, 공공기관에서는 정보보안기사를 보유한 엔지니어가 보안 지식이 없는 선생님들에게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고객사에서 우리 제품과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업무를 요청했다. 팀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가능한 직원은 나뿐이었기에 내가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다른 고객사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영업적으로 제안하게 되었고, 당당하게 내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짱퀴리’(내 성과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합침)라는 별명도 얻었고, 인정을 받다 보니 공부하는 데 즐거움이 생겼다. 학부 때 따로 배우지 않았던 분야임에도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얻은 좋은 결과여서 나 자신도 놀랐다.

이렇게 입사 전후로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부분이 바로 자격증이다. 애증의 관계처럼 시험에서 떨어지면 힘들어도 또다시 도전하고 싶어지고, 합격하면 공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던 과정들. 취업 준비생 때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회사에 입사해서는 나를 판단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회사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더욱 전문적인 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격을 공부하고 도전할 생각이다.

섬유와 의복 공정에 관한 자격



섬유기사

66

섬유기사는
섬유재료의 특성과 성능을
파악하는 분석가다.

99

섬유기사(Engineer Textile)

섬유(纖維, Textile)란 가늘고 길며 연하게 굽힐 수 있는 선 모양의 물체로, 인조섬유와 천연섬유가 있다. 섬유기사는 이러한 섬유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방적, 제직, 정련표백, 염색 및 가공이 가능한가, 각종 섬유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자격이다. 한편, 섬유기사 자격 보유자는 섬유, 염료합성, 염색 및 가공 관련 업체 및 연구소로 진출할 수 있다. 염색 및 가공에 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으로 설계, 분석, 공정과 기계 조작에 관한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검정형 자격 취득 방법	시험과목		검정방법	
	필기 : ① 방적 및 제직학 ② 섬유시험법 ③ 섬유재료학 ④ 염색 및 가공학 ⑤ 합성섬유학 실기 : 섬유물리 및 섬유화학시험 작업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5시간 정도)	
자격증 관계도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염색기능사(날염) 염색기능사(침염) >> 섬유산업기사 >> 섬유기사 >> 섬유기술사			

응시자격
공통



01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1년
- 기능사 + 3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의류기사



66

의류기사는
의복을 디자인·설계하고
상품화하는 제작자다.

99

의류기사(Engineer Clothing)

의류(衣類, Clothing)란 사람이 몸에 걸치는 여러 가지 옷을 총칭하는 말이다. **의류기사는** 피복을 설계하고 디자인, 작업지시서 작성, 제도 및 재단, 가봉, 섬유감별 등으로 피복을 제작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자격이다. 의류기사 또한 방직 및 방직업체, 섬유제조업체, 섬유제조 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수주된 직물의 생산 가능성 여부 검토, 제품의 유행성에 대한 시장성 조사, 새로운 제품 및 디자인 개발, 표준화된 검사, 장비 및 방법 등을 이용하여 가공된 옷감의 물리적 특성 시험, 완성된 제품의 품질상태 점검 등을 수행한다.

검정형 자격 취득 방법	시험과목 필기 : ① 피복재료학 ② 피복환경학 ③ 의복설계학 ④ 봉제과학 ⑤ 섬유제품시험법 및 품질관리 실기 : 피복과학, 피복설계 및 제작실무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작업형(6시간 정도)]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자격증 관계도	의류기사 » 의류기술사	

02 관련학과 졸업자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 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03 순수 경력자

실무경력 4년
(동일, 유사 분야)



재활용을 통한 ‘새활용’으로 고래를 살립니다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주)우시산 변의현 대표

울산의 특화된 문화콘텐츠, ‘고래’에 이야기를 입히고,
그 이야기를 모아 고래를 살리는 (주)우시산.
바닷속 페플라스틱을 걷어내고 친환경 솜과 실로 재탄생시킨
별까루(고래)와 별바다(거북이), 별들포(해마)는
대중들로 하여금 착한 소비를 일으킨다.
인간과 지구 생명체들의 공존을 꿈꾸는
(주)우시산(이하 우시산)의 이야기를 Q&A로 담았다.



(왼쪽부터)기획홍보팀 박소연 부장, 변의현 대표, 기획홍보팀 배영순 대리

- 별까루: 울산 장생포 앞바다는 귀신고래가 새끼를 낳기 위해 이동하는 경로의 하나로, ‘별까루’는 이 귀신고래가 따개비를 털어내는 행동을 ‘따개비=별’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 별바다: 신라시대 문무대왕의 왕비가 호국용이 되어 잠겼다는 전설을 품은 울산 동구의 대왕암에서 따왔다. 대왕암 주변에는 생김새가 거북이와 같아 거북 바위로 불리는 바위가 있다.
- 별들포: 독도가 보이는 울릉도의 정들포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곳 해마는 국제 멸종위기 2급 해양생물이다.

Q — 우시산과 고래와의 인연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우시산은 어르신 바리스타를 위한 공간을 운영하는 것에서 출발했어요. 이곳 무거동에 카페를 열고 갤러리로 꾸몄는데, 갤러리만으로는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손수 ‘고래’ 열쇠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고래와 인연이 되었죠. 울산은 공업 도시로서, 물론 문화시설은 갖추어져 있지만, 콘텐츠가 부족했어요. 기념품 매장에 가 봐도 주제와 무관한 중국산 제품들이 즐비했죠. 남구청에서 “제품 아이디어가 괜찮으니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고, 2016년, 남구청과 협약을 맺어 다양한 고래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Q — 이후에 고래 콘텐츠 관련 사업이 더 확장된 거네요.

그렇죠. 고래의 고향인 남구 장생포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씩 고래 관련 콘텐츠를 채워 나가기 시작했죠. (웃음) 고래박물관, 고래문화특구 내 고래문화마을, 장생포 아트스테이에 우시산 제품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았는데, 우시산 카페가 울주군과 맞닿아 있어서 문화 소외지역으로 분류돼요. 지역 어르신이 지역 문화 콘텐츠로 제품을 만든다는 게 재밌잖아요. ‘행자부가 주최하는 지역 공동체 우수사례’에 선정됐어요. 이어서 장생포에 버려진 건물을 활용하는 사업에도 선정돼서 과거 고래잡이 시절 운영되던 ‘여인숙’을 리모델링 하기도 했죠. 현재, 직원이 11명으로 늘었고, 울산의 대표 사회적기업이자 고래 관련 광벤처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Q — 현재 우시산이 주력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2018년 겨울쯤 고래, 거북이 등 해양생물 등이 플라

스틱을 먹고 아파하는 사례들이 뉴스에 꾸준히 보도됐어요. 2019년 국정과제가 플라스틱 저감이었고요. 2019년 1월에 우시산과 울산항만공사, 울산 지방해양수산청, SK에너지, 그리고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협회가 장생포에 모이게 됐어요.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선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인형, 가방 등으로 업사이클링(up-cycling·재활용품에 디자인과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 해보자는 의견이었고, 4월부터 협약을 맺고 ‘세이프 더 오션, 세이프 더 웨일즈(Save the Ocean, Save the Whales)’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즉,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고래를 살리고 그 폐플라스틱으로 ‘새활용’ 가능한 고래 제품을 만드는 일이 우시산의 주력사업이 됐습니다. 곧 ‘차량용 트렁크’도 나올 예정인데, 플라스틱을 모아 다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 사회적기업으로서 기술이 기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업사이클링’ 사업에 뛰어들 건가요?

우시산이 1년 만에 ‘업사이클링’ 기업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업사이클링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새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업사이클링 제품 생산가격이 2~3배 높거든요. 게다가 그 과정이 번거로워요.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씻은 후 갈고, 다시 칩을 만드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요. 고객 입장에서 그 가치는 알겠지만, 구매하기까지는 망설임 수밖에 없거든요. 우시산은 공공기관과 기업, 국제기구가 함께 하는 사업이어서 단가를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스토리텔링’에 힘을 실었어요. ‘이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또, 걸스데이 유라, 동방신기 최강창민 등 유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것도 큰 힘



- 1—업사이클링 에코백
- 2—업사이클링 고래 장바구니
- 3—업사이클링 반구대 암각화 티셔츠
- 4—인형체험키트



이 됐죠. 실제로 동방신기가 에코백을 메고 나온 직후에 국내외에서 6,000개 주문이 들어왔어요.(웃음)

Q — ‘이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 한다는 게 인상 깊네요. 선박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형을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도 궁금합니다.

선박, 항구 등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으로 새 제품을 만드는 건 울산이 전 세계 처음이에요. 우선, 울산항만공사에서 선원들을 계도 했고, 선박에서 페트병만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부두에 쓰레기차를 갖다 놓으면 소각 하러 가면서 ‘페트병’만 쓰레기차에 넣어주죠. 모은 페트병을 친환경 솜과 실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과정을 거쳐서 다시 ‘고래’, ‘거북이’, ‘해마’ 등으로 재탄생시키죠. 해양수산부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올해 전국 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올해 말에 프로젝트가 재개되면, 부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 — 우시산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네요.

올 3월, 울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 3일 만에 우시산 모든 사업장의 문을 닫았어요. 1월~2월까지만 해도 매출이 억대였는데, 0원으로 툭 떨어지니 존폐 위기에 몰렸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고래 인형을 담아서 대구로 보내자! 했어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모든 후원금이 집중되는데, 소외된 저소득층 아이들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기업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다”, “어벤져스!” 하며 극찬을 보내왔죠. 그 기사를 보고 기업체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본인들도 고래 인형으로 후원을 하겠다며 후원금 2,0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등을 보내오면서 코로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Q —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시산을 한 번 더 알리는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19 발생으로 힘들었지만,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또 우시산은 모든 판매를 오프라인 루



QR코드를 인식해
상생협력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트로만 했고, 특히 ‘텀블러’ 등은 각종 행사를 위한 주문이 크게 들어오는데, 행사를 하지 않으니 아무도 사지를 않았죠. 그래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고 ‘언택트 체험키트’를 개발했어요. 기업들이 직접 봉사를 가는 대신에 ‘키트’를 보내서 봉사활동을 대신하면서 ‘업사이클링 바다생물 인형 체험키트 (15,000원)’ 판매량이 급증했고, 키트로만 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Q — 앞으로 우시산의 꿈은 무엇인가요?

우시산은 울산의 옛 지명입니다. 울산의 대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는데, 고래와 연결되면서 조금씩 꿈이 생겼어요. 2018년 jtbc <다큐플러스>에서 ‘환경’을 주제로 국내외 기업을 다룬 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등장한 국내사례가 우시산이었어요. 그때 2019년부터는 ‘고래를 살리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2019년 1월에 정말로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꿈들이 계속 공개져서 2021년, 전 세계 항구로 사업이 확장되고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별까루(고래), 별바다(거북이), 별들포(해마)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고유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에, 이런 바다생물 인형들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싶습니다.

상생협력관에 참여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상생협력관 사업이 무엇인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홍보센터가 예산·인력 등의 이유로 제품홍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업을 위해 마케팅·홍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생협력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업 제품 등록 (정보인프라 공유)  기업이 직접 제품을 등록	홍보, 마케팅 지원 (판로확산)  공단 보유 홍보 채널에 홍보	기업 혁신성장 지원  제품문의 및 투자처 확보 등 혁신기업 경영성과 확대 지원
---	--	--

상생협력관을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단 정보 플랫폼 공유/개방

- 기업관계자가 직접 해당기업 정보를 등록 관리
- 빠르고 정확한 신제품 기업정보 반영 가능

홍보 효과 ↑



고래와 신화의 터전, 울산 남구로의 여행



울산 곳곳의 안내판에서 고래 문양을 만날 만큼 푸른 고래를 사랑하는 도시,
울산 남구 여행의 첫 키워드는 ‘고래’다.

고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총망라한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
고래잡이배인 ‘포경선’으로 활기를 띠던 장생포의 옛 모습을 재현해놓은 고래문화마을은
울산이 왜 고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해줄 것이다.

고래에 흠뻑 취한 다음에는 울산공단의 역사가 담긴 신화마을로,
다시 도심 속 울산대공원으로 걸음을 옮겨
시시각각 변화하는 남구만의 매력에 빠져도 좋을 것이다.





Plus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관광안내 어플

내 손안에 장생포



1



2

1 — 고래문화마을 속 장생포옛마을 전경

2 — 울산 장생포에서는 고래바다여행선을 통해 바다에서
힘차게 유평하는 참돌고래떼를 만날 수 있다.



고래 관광 —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한때, 울산 장생포는 포경업(고래잡이)의 전진기지로 활기를 띠었다. 1970년대 말 고래잡이가 전성기를 이루던 때, 장생포는 20여 척의 포경선에 인구가 1만 명에 달했고, 울산에서 가장 부(富)를 누린 곳이었다. 그러나 지나친 포획으로 고래의 개체 수가 감소하자 1986년 고래 포획이 금지되면서부터 그 명성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졌다.

울산은 고래와의 깊은 인연을 살려 2015년 5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조성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행선 운영에 이어 ‘고래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고래문화특구가 형성되었고, 남구 장생포는 국내 유일의 고래 관련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고래잡이의 역사를 안은 채 고래와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 장생포는 때로는 고래의 쉼터가 되어주고, 때로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고래 알리미로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 고래에 관한 콘텐츠를 총망라한 이곳 장생포 앞바다에는 여전히 고래떼가 뛰노는 그야말로 장생포는 하나의 거대한 고래도시박물관이다.

📍 남구 장생포 고래로 244 (매암동 139-29) | 🕒 대표시간 09:00~17:30, 관람시간 09:00~18:00(휴관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장생포 고래박물관

고래연구실, 고래탐험실 등을 통해 사라져가는 포경유물을 수집, 보존·전시하고, 고래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해양생태계 및 교육연구 체험공간을 제공한다.

고래생태체험관

우리나라 최초의 돌고래 수족관으로, 바닷물고기 수족관과 생태 전시관은 물론 디오라마로 장생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층에는 입체영화를 통해서 고래를 만나는 4D 영상관이 있다.

고래문화마을

고래이야기길, 고래광장, 고래조각공원, 선사시대 고래마당, 수생물식물원, 고래만나는길, 장생포옛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장생포옛마을에는 선장의 집, 선원의 집, 기념품가게, 국민학교, 고래해체장 등이 있다.

고래바다여행선

고래바다여행선으로 고래탐사와 연안투어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2차 운영중단 이후 다시 고래문화특구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11월은 주말 4회(고래탐사 2회, 연안투어 2회) 연장 운항할 예정이다.

🌳 도심 속 관광 — 울산대공원

1960년 이후 울산이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로서 급성장하면서 도심 환경에 대한 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한 공업도시로서의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지만, 공해와 더불어 삶의 질이 낮다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86년부터 대공원 조성을 추진해온 울산광역시와 기업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방법을 찾던 SK주식회사가 1995년, 손을 맞잡은 것이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이었다.

이후 남구 공업탑 로터리 주변 신정동과 옥동 일대 364만 여㎡의 부지에 조성된 울산대공원은 그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자연생태(장미계곡, 대공원동물원, 사계절꽃밭)와 놀이여가(놀이시설, 피크닉장, 물놀이장) 등을 갖추었다. 절실한 때에 등장한 도심 속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주춧돌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안팎으로 사랑받는 공원이다. 매년 5월이면, 성대한 장미축제가 열려 전국에서 수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하다. 모두가 주목하는 장미가 아닐지라도, 계절에 맞게 흐드러진 꽃들과 나무들은 사계절 풍요롭고 아름답기만 하다. 📍 울산 남구 대공원로 94 | 🕒 평일 05:00~23:00 연중무휴, 주말 05:00~2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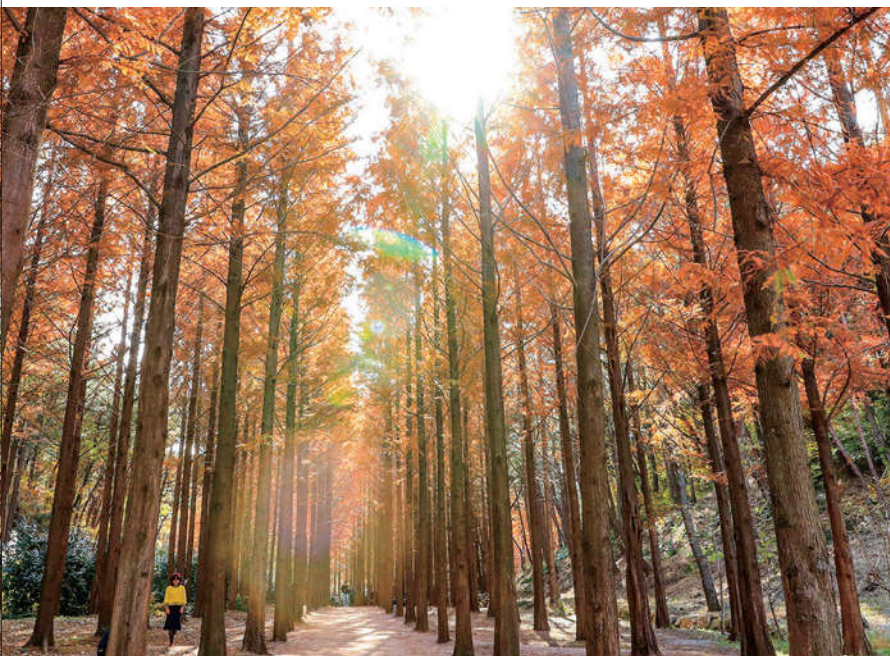
🎨 문화예술 관광 — 울산 신화마을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신화마을은 1960년대에 울산공단의 형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단 이주민촌이다. 신화(新和)라는 이름은 “새롭게 화합하여 잘 살자”라는 뜻이다.

울산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멈춘 도시 속의 섬처럼 자리해온 신화마을은 2010년 영화 「고래를 찾는 자전거」 촬영지에 이어 같은 해 6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 ‘2010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때 지역 작가들이 투입되어 벽화마을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서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관광객을 위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예술인 작품 전시장과 판매장을 조성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지붕 없는 미술관이 되었다. 2013년 신화예술인촌이 문을 열면서 예술마을로의 모색과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로서의 의미가 더욱 견고해졌다.

이처럼 신화마을의 역사는 꽤 깊다. 울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혔지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대안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옷을 입었다. 고흐, 칸딘스키, 르누아르, 세잔 등 유명 화가의 작품을 벽화로 만날 수 있고, 고래도시인만큼 고래 벽화도 틈틈이 발견할 수 있어 과연 울산이라 할 만하다. 단, 신화마을은 여전히 주민들이 사는 생활 터전이다. 관람 시 존중과 배려는 필수다. 📍 울산 남구 여천로66번길 7





1—울산대공원
2—울산 신화마을



울산 남구 • 주요 전통시장 •

01—수암시장 & 한우수암야시장 | 1970년초에 상가건물로 시작하여 점차 골목시장 형태의 점포가 늘어나 이 일대 대표시장으로 거듭났다. 농수축산물과 의류 등을 취급하는 120여 개 점포가 있다. 최근 한우를 앞세운 울산 최초 야시장 개장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방문객이 늘고 있다.
◀남구 수암로128번길 12 일원

02—신정시장 | 1970년 초에 형성된 울산 대표 전통시장이다. 도심에 있는 시장으로 접근성이 좋아 일주일 내내 붐빈다. 농수축산물과 식료품, 의류 등을 취급하는 380여 개 점포가 있다. 30년 이상 전통의 칼국수 거리와 국밥 골목이 유명하다. **◀남구 월평로47번길 7 일원(신정지하도 주변)**

03—야음시장 | 1976년에 개설된 전통시장으로서, 2016년 아케이드 설치 등 현대화사업을 실시했고, 2017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었다. 농수축산물과 식료품, 의류 등을 취급하는 210여 개 점포가 있다. **◀남구 수암로 234 일원(야음지하도 옆)**

04—울산번개시장 | 울산번개시장(구 야음체육관시장)은 1960년대 부곡, 용연, 여천, 매암동 일원의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형성된 전통시장이다. 농수축산물과 잡화 등을 취급하는 150여 개 점포가 있으며, 2017년 11월 공영주차장이 준공되어 시장 재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남구 신선로184번길 36 일원(야음새마을금고 뒤편)**

체온 1°C가 면역력을 좌우한다

체온 유지법 및 저체온 자가 진단법



너무 높아도 문제? 너무 낮아도 문제!

‘체온’에 따른 우리 몸의 변화

체온은 환경과 몸 상태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체 기능 또한 체온에 따라 민감하게 대응한다.

정상체온은 36.5°C~37°C의 범위다. 체온은 이렇게 적정할 때 가장 좋다.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혈액순환이 원활한 상태로 충분한 영양과 산소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게 된다.

체온이 과도하게 오르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몸이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하기 위해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과다한 에너지를 쓰게 되고,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 체온이 0.5°C만 떨어져도 우리 몸은 추위를 느낀다. 체온이 높을 때와 반대로 혈관이 수축해 혈류량이 줄어든다.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진대사에 장애가 생기면서 호흡과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적정한 ‘열’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하다. 모든 질병은 저체온에서 출발한다. 몸이 차갑다는 것은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려면 평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체온이 37°C보다 살짝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면역력’도 증가한다는 게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36.5°C~37.5°C를 사수하라!’

따뜻한 몸을 유지하는 방법

저체온증은 심부체온(*내부 장기나 근육에서의 체온)이 35°C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정상체온에서 1°C가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36%, 기초대사량은 12%, 신진대사 관여 효소능력은 50%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습관이 필요하다.

첫째,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의 일부는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근육이 많아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하면서 열 생산량이 많아진다. 간단한 운동으로는 양발 끝을 치는 동작을 매일 3분 동안 반복하는 것도 체온을 올리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과식하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소화 기관으로 몰린다. 또한, 냉장고 등의 사용으로 이미 현대인들은 과거와 비교해 찬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 이에 대한 조절도 필요하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전신으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체온이 낮아진다. 이때는 복식호흡이나 명상이 도움이 된다.

넷째,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충분히 잠을 자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체온을 높일 수 있다.



2개 정도 → ● 조심
3개 정도 → ● 저체온 경고
4개 이상 → ● 저체온

· 저체온 자가 체크리스트 ·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엔 ‘체온 1°C’를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온이 36.5°C일지라도 열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으면, 저체온일 수 있다. 저체온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 몸을 꼼꼼히 살펴보자.(2번의 경우, 여성에게만 해당하는데 이 밖에도 여성들은 출산 등으로 인해 쉽게 저체온이 유발될 수 있다.)

- ☐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하고 밤에도 잠이 잘 안 온다.
- ☐ 생리통, 생리불순으로 매달 스트레스를 받는다.
- ☐ 손발이 차갑고 저린 편이다.
- ☐ 허리, 무릎 등 근육과 관절에 항상 통증이 있다.
- ☐ 소화 불량과 복부 통증으로 설사나 변비가 잦다.
- ☐ 복부 비만이다.
- ☐ 무기력증, 우울감으로 무엇을 해도 기운이 나지 않는다.

*이 글은 현대인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목적의 글로, 더욱 정확한 질병의 진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립니다.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근무 환경이 달라진다

유연근무제가 불러온 변화와 지원책 관련 정보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 등을 선택·조정하는 근무제도다.

대기업 72%가 유연근무제를 코로나 이후에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 56.7%는 업무효율 및 생산성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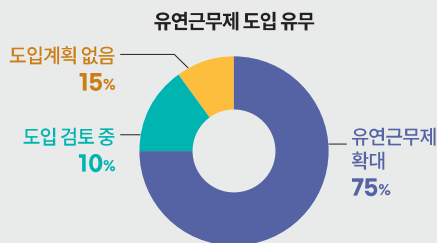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 더욱 굳건히 자리 잡은 근무 문화인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가 불러온 변화와 이를 위한 지원책까지 살펴본다.

코로나19 대응 유연근무제 현황

코로나19 대응 유연근무제 현황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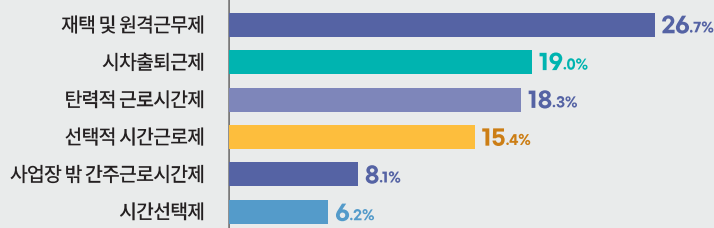
유연근무제 확대 유형



유연근무제 도입 형태

유연근무제 도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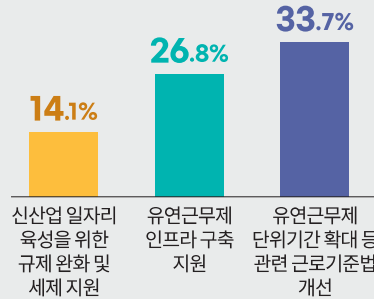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유연근무제 관련 정부 정책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환경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지원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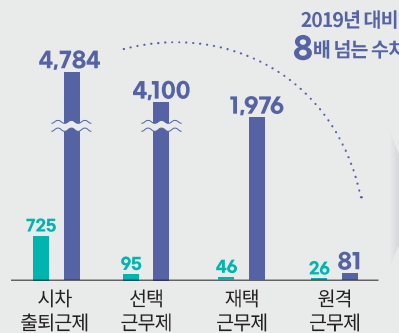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대응점 검토 후
재택·원격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유연근무제 지원 신청 현황 및 지원 대상

유연근무제 지원 신청 현황

■ 2019 ■ 2020 (단위: 개)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6년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지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당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남.

· 유연근로 노무비 지원 대상 ·

- 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만 신청 가능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승인(업종제한 없음)
- 비용 :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5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 주 1~2회 사용 시 5만 원
 - 3회 이상 시 10만 원으로 최대 1년간 지원
-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업로드 후
지역 고용센터 승인(수시 심사) 필요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TV SK broadband 273번, KT Olleh 252번, LG U+ 251번, skylife 189번, T브로드 210번, CJ헬로비전 230번,
딜라이브 256번

- 홈페이지·유튜브 실시간 방송시청 또는 VOD 다시보기(모바일 기기도 가능)

- 세부 시청 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직업방송매체부(052-714-8295)로 문의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직업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리멤버 카드를 통한 능력개발기획부 직업가치관 찾기 도전

지난 9월, 최초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6인의 능력개발기획부원들.
이처럼 외부로 향해 있던 나침반을 ‘내부’로
돌리는 것이 오늘의 미션!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가 추구하는
나의 HRD는 무엇인가?’ 각자의 내면 깊숙이를
들여다본 능력개발기획부의 시간을 전한다.

REMEMBER



리멤버 카드를 통한 HRD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경영의 guru(구루), 피터 드러커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다른 사람의 기억에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는가를 질문하게 하는 카드다. **기술, 봉사, 리더십, 창의, 지혜, 안정, 도전, 균형** 등 8가지 총 56개 리멤버 카드를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갖도록 한다.

리멤버 카드 HRD 활용법

- 01 56개의 리멤버 카드를 모두 펼쳐놓는다.
- 02 이미지를 본 후 직관적으로 끌리는 리멤버 카드 8개를 뽑는다.
- 03 리멤버 카드를 뒤집어 ‘문장’을 읽은 후 일부를 교환해 총 5개를 남긴다.
- 04 나는 어떤 직업 방향성을 지닌 사람인지, 타인에게 어떤 사람이고자 하는지를 들여다본다.
- 05 직업가치선언문 작성을 통해서 나의 목표와 방향성을 되새긴다.



당신은 나에게,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일까?

김호연 부장을 필두로 6인의 능력개발기획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미지를 보고 한 번, 문장을 보고 또 한 번. 카드를 들었다 놔다 최종적으로 손에 든 다섯 장의 카드는?

김호연 부장의 지향점은

-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킨 사람 **안정**
- 안정감이 있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 **안정**
- 순수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균형**
- 지혜를 통해 목표달성을 도운 사람 **지혜**
-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 **봉사**

김호연 부장은 ‘안정’을 지향하면서도 리더로서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깨어있고 싶다면 ‘균형’을 우선했다.

김현수 차장의 지향점은

-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 **안정**
- 아름다운 얼굴로 세상을 향기롭게 바꾼 사람 **안정**
- 책임감으로 훌륭한 일을 한 사람 **리더십**
-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 **기술**
- 아이디어로 편리함을 준 사람 **창의**

김현수 차장은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뽑으며 모든 일에 성실과 책임감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승아 차장의 지향점은

- 열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준 사람 **도전**
-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안정**
-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 사람 **도전**
-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함께 해 준 사람 **봉사**
- 재능을 활용해 타인의 성장을 도운 사람 **기술**

이승아 차장은 주로 타인의 성장을 돕는 ‘도전’ 카드를 선택했고, 다음 카드는 ‘안정’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윤주 과장의 지향점은

- 유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한 사람 **창의**
-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한 사람 **창의**
- 훌륭한 의사결정을 한 사람 **리더십**
- 다른 사람이 포기한 일을 성공시킨 사람 **도전**
- 아이를 잘 키워낸 훌륭한 부모 **안정**

이윤주 과장은 기피하는 일도 즐기는 타입으로 ‘창의’를 꼽았고, 마지막 카드인 ‘안정’을 통해서도 일과 양육의 균형을 위해 애쓰는 마음이 엿보였다.

이혜민 과장의 지향점은

-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기술**
- 전문적인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 **기술**
- 신사업을 시작해 성공시킨 사람 **창의**
- 행복을 위해서 안식년을 가진 사람 **안정**
-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친절함 사람 **봉사**

이혜민 과장은 팀 내에서 ‘기술’ 카드가 가장 뚜렷한 사람으로서, 따뜻하고 친절함 사람, 때때로 안식년을 가질 수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김예찬 대리의 지향점은

- 구속 받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 **지혜**
-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한 사람 **지혜**
- 무엇인가를 더 개선한 사람 **지혜**
- 갈등하는 사람을 화해시킨 사람 **안정**
- 불순한 유혹을 참고 소신을 지킨 사람 **안정**

무려 세 장의 카드가 ‘지혜’와 관련된 김예찬 대리는 지혜에 관한 뚜렷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 꼽혔다. 과거에는 ‘안정’이었다면, 미래에는 ‘지혜’를 지향하고 싶다고 전했다.



‘달리’ 또 ‘같이’

능력개발기획부 6인의

최종 직업가치관을 소개합니다!



“

나 김현수는
맡겨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더욱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



“

나 김호연은
신뢰와 순수함을 가지고
다른 이를 도와가면서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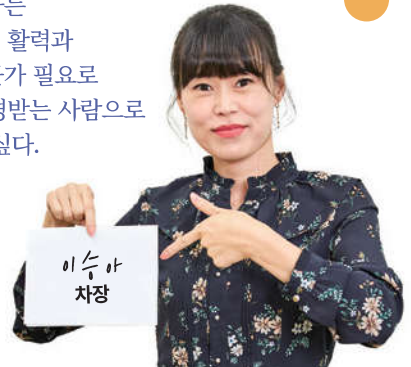
”



“

나 이승아는
다른 사람에게 활력과
용기를 주고 누군가 필요로
할 때 함께해주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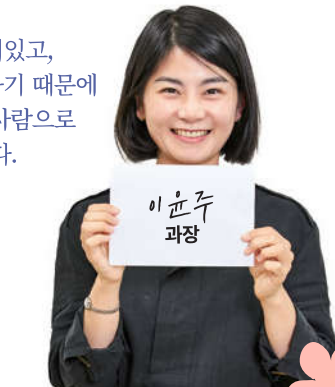
”



“

나 이윤주는 재미있고,
훌륭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



“

나 이해민은
전문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따뜻하고 친절할 마음씨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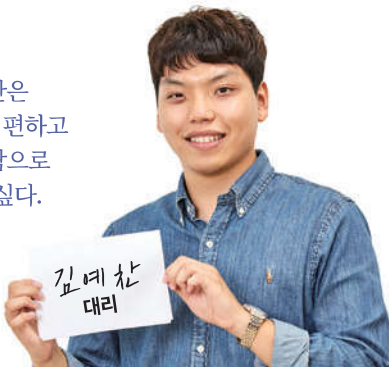
”



“

나 김예찬은
같이 일할 때 편하고
즐거워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





MINI
INTERVIEW

능력개발기획부 김호연 부장 인터뷰

능력개발기획부를 소개합니다!

Q —— 직업능력국 안에서 능력개발기획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 능력개발기획부는 능력개발이사 소관 주무부서로, 이사 내 경영계획, 정부경영평가 실적관리, 인사, 예산 편성 및 관리, 사업 제도개선, 국회 업무 등을 통해 능력개발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9월 직업능력의 달 행사, HRD 우수기관 인증 등 HRD 확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 능력개발기획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A —— 능력개발기획부는 총괄 부서로서 경영지원 및 제도 설계, 운영을 위한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연중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부서 특성상 빠른 판단력도 요구됩니다. 또한, 여러 부서의 사람들과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소통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Q —— 올해 처음 시도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의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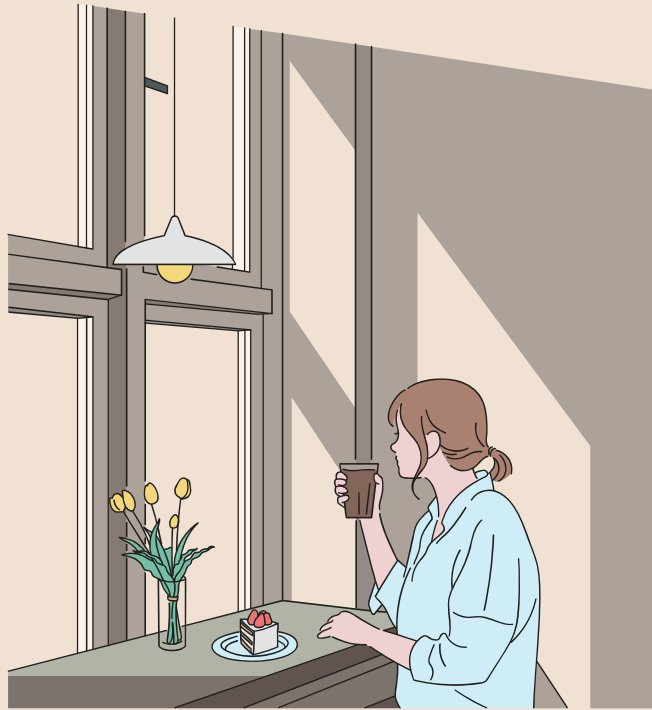
A —— 열네 번째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중 처음으로 경험한 비대면 온라인 강연이었는데, ‘강연은 대규모 장소에서 강연자와 대면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기존 인식을 깨뜨리는 기회였습니다. 올해 컨퍼런스 주제 자체가 ‘뉴노멀시대, 사람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었고, 이에 따른 새로운 IT교육,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포스트 휴머니즘, 온라인 러닝퍼실리테이션, HRD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 등의 주제를 가진 세션이 준비되었는데, 그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지요. 참관자들도 이러한 변화를 실무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의 필요한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온라인교육 플랫폼이 확대되고, 활용되는 기회였습니다.

Q —— 향후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관련 능력개발기획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강연이라는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고충도 많았지만, 4,800여 명의 온라인 참관객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을 얻었습니다. 공단에서 매년 개최하는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훈련기관 등 다양한 HRD 담당자들이 관심을 쏟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 시 대면과 비대면 강연을 병행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HRD 관련 좋은 강연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숨 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

공단 본부 독서모임 **리딩니딩**이
바라본 언어에 대한 고찰



이예현 연구원

본래 감정이란 건 느끼는 것이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작가는 작가 고유의 풍부한 감수성을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예쁘게 눌러 담은 느낌이었다. 그중에서도 <속이 보인다>를 풀어낸 이 문장이 인상 깊었다.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쉴 새 없이 자기의 단점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급적이면 좋은 게 더 많이 보는 사람은 아마도 안에 좋은 게 더 많은 사람일 테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생각해보았다. 내 안에 좋은 게 많은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을 더 많이 알아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지은 대리

평소 대수롭지 않게 사용해왔던 단어와 문장에 대해 환기한 시간이었다.

김이나 작가는 관계, 감정, 자존감의 언어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책을 집필했는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은 Part 01. 관계의 언어 중 <실망>이라는 단어였다. 실망은 나의 ‘기대치’에 타인이 충족하지 못했을 뿐 그 감정은 어쩌면 기대한 내 잘못일 수 있다고 정의한 점이 흥미로웠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부푼 나의 기대감보다는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준다면, 우리의 관계는 좀 더 유해하지 않을까.

홍주현 선임연구원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미세하게 다르게 사용되는 보통의 언어들. 그중에서 <살아남다>라는 단어는 몇 해 전 휴직 중 만난 후배에게 실제로 들은 말이었다. 후배와 대화를 나누던 장면 속의 나와 마주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복직에 대해 고민하던 나에게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라고 했던 후배. 마냥 귀엽다고만 생각했던 후배가 던진 메시지는 꾸역꾸역 버티라는 말이 아닌, 걱정만 하지 말고 스스로 부딪혀 이겨내 보라는 격려였다. 조언 덕분인지 나는 지금 여기 살아남았고, 그 시절의 나처럼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조언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격려와 함께)“살아남으라고.”

조수현 과장

『보통의 언어들(나를 숨 쉬게 하는)』은 무심코 쓰는 단어들에 대해 작가가 치열하게 고민한 생각과 이를 통해 본인이 가꿔온 삶의 방향성을 전하는 책이다. 유명 작곡가로서 가사로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니 말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내가 일상에서 쓰는 무수한 단어들에 대해 조용히 곱씹어보는 시간이었다.

이아란 연구원

평소 김이나 작사가의 가사를 보면서 참한 얼굴과 다르게 과감한 표현이나 참신한 문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는 미처 하지 못했던, 그가 가진 생각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녀의 감성이 너무나 좋았다. 특히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감정 서랍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는다. 내 머릿속의 상상이나 공상들을 글로 풀어내는 연습을 해서 톡톡 튀는 생각과 느낌이 담긴 나만의 글을 써보고 싶다.

박지유 대리

관계의 언어, 감정의 언어, 자존감의 언어. 그 속에 여러 단어가 짧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읽지 않아도 되고, 마음에 드는 단어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읽기에 좋았다. 한 단어를 꼽자면 <유난스럽다>라는 말이 부정이 아닌 긍정의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다. 언제든 특정 단어가 생각날 때 부담 없이 펼쳐 읽기에 좋을 것 같다.

**보통의 언어들(나를 숨 쉬게 하는) 김이나(작사가) 저, 위즈덤하우스**

“노랫말을 짓기 위해 수많은 감정으로 요동치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다 보면, 그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는 원인과 현상에도 집중하게 된다.” 언어를 발굴하는 김이나 작사가는 Part 01. 관계의 언어, Part 02. 감정의 언어, Part 03. 자존감의 언어, 세 가지 방향으로 단어들을 수집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감정의 단어들을 수집하고, 그 단어들이 다 풀어내지 못한 마음의 풍경을 섬세하게 포착했다. 이러한 시선을 따라 『보통의 언어들』에서는 평범한 단어들 속에 깃든 고유의 특성과 의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청렴한국’의 일상화

이재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신고센터장

현재 대한민국은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방역수칙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도 소중한 일상과 가족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바뀌고 있다. 온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국가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와의 힘들고 긴 싸움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떠올리며 청렴(清廉)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본다. 청렴은 개인의 노력을 통한 성과이지만 조직 발전의 필수 요소로서 생활 속 청렴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의 노력이 아닌 우리 생활 전반이 청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함께 노력해야 청렴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청렴의 실천은 작은 생각의 변화와 작은 습관을 변화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마치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작은 생활 습관 변화를 생활화하는 것처럼 부패로부터 노출을 차단하고 느슨한 유혹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는 작은 일상 변화, 생각들의 변화로부터 이뤄진다. 특히나 코로나19로 대면생활이 어려운 이러한 시점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백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펄프·제지업체인 「인터내셔널 페이퍼(International Paper)」 역시 일찍부터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 경영 위험을 통제해 온 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인터내셔널 페이퍼는 펄프·제지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사업일수록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경영철학이 중요하다는 경영진의 판단 아래 기업윤리의 실천에 앞장서 왔다. 이 회사의 윤리경영 사례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윤리 및 비즈니스 관행을 전담하는 임원과 조직을 설치하고 모든 직원이 출장 시 테스트 카드(Luggage card)를 의무적으로 소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LUGGAGE CARD

■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자문하라.

- 내 행동이 합법적인가?
- 내가 과연 공정정대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 내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과연 옳다고 여겨질 것인가?
- 신문에 보도되면 어떻게 보일까?
- 오늘 밤 편히 잘 수 있을까?
- 나중에 스스로 어떻게 느낄 것인가?
-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옳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계속 자문하라.

이 카드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청렴한 자세는 일방적 교육이나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피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돼야 할 덕목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일상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일상화를 위해 노력하듯이 이제 우리 모두의 생각과 생활도 청렴을 일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동서발전 협업으로 고용 위기 공동 대처

공단과 한국동서발전은 10월 13일, 공단 본부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장학금 지급, 취업 지원, 협력·관계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달 중순부터 전국 에너지 관련 ‘일학습병행’ 참여 중소기업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대상 학습근로자를 모집·선정하고, 동서발전과 함께 내년까지 최대 1억 원의 장학금을 200명의 청년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과 동서발전은 2019년 시범적으로 울산지역 에너지 기업 일학습병행 교육 수료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부·울·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단은 10월 6일, 부산광역시여성회관, 울산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부산·울산중부·경남광역 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된 취업 희망 경력단절여성을 국가자격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새일센터는 위촉위원 관리 등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11월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37개 종목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최종 합격한 여성 수험자 중 희망자에게 큐넷(Q-net.or.kr)에서 합격 여부와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공단은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 유관단체, 민간기업 등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참가신청서와 기관소개, 도입배경 등 채용 사례를 파워포인트로 작성해 이메일(ceujin2@hrdkorea.or.kr)로 제출하면 된다.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6점, 지방공기업 2점, 공직 유관단체 2점, 민간기업 6점 등 총 16점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한다.



울산 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기관 업무협약 체결

공단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는 10월 5일 공단 본부에서 중소기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안전점검, 진단, 개선 등 안전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내 안전관리 매뉴얼 제·개정 지원,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달 중순부터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해 11월까지 협회와 함께 안전관리 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에 국제범죄 피해 예방 교육

공단은 10월 27일부터 국가정보원과 함께 한국 입국 예정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제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다수의 외국인이 한국의 법과 제도 등에 익숙하지 않아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주요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 입국 전 현지에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사전취업교육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교육을 위해 국정원은 국제범죄 피해 예방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공단은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설치된 현지 EPS 센터를 통해 한국 입국 예정 외국인 근로자들을 교육한다. 양 기관은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 상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Letter box



박성주

울산은 면적이 넓거나 볼거리가 많아서인지 구별로 볼거리를 안내해주셨군요. 자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경주 수증릉 외에도 울산에도 대왕암이라는 게 있다는 걸 새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울산 동구 방문해보려 합니다.



나동훈

이번 호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보면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우대받고 노하우가 후대에 전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계속 역사와 유래와 전통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김은미

<인싸 책방>의 책 추천 글들을 보니 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퇴근길 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겨 봐야겠습니다.



김현우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스마트 직무 훈련에 관한 칼럼이 아주 유익했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온 직무환경의 변화에 맞게 직무교육도 개선되고 직무훈련자도 이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선영

K-뷰티를 선도해 나가는 두 분의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평소 피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터라 더욱 관심있게 봤습니다. 진정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연희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의 입장에서 이번 달 <신박한 자격>에 소개된 직업상담사 자격종에 관심이 갑니다. 취득 과정과 방법도 알려주시니 좋았습니다.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나 자격증을 자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HiRD Korea

vol. 293



QR코드를 인식해
이번호 의견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당첨자

박성주 33**	나동훈 35**
김은미 44**	김현우 29**
이선영 38**	이연희 71**

이번 HiRD Korea 어떠셨나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상단 QR코드를 인식해

(11월 1일~11월 23일)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엽서, 이메일

(kyl626200@hrdkorea.or.kr/

이름, 연락처 기재)로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3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 안내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안내됩니다.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이겨내자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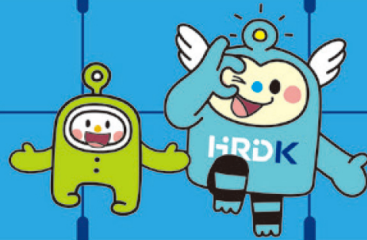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HRD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 국민 평생교육과 능력개발의 요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일궈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위로합니다.





인적자원개발의 즐거운 조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HRD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수집 및 이용 목적 : 엽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 발송
- 수집항목 : 이름, 전화번호
- 보유기간 : 동의 철회 시까지, 수신 거부 시 즉시 삭제
-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발송유효기간
2016. 5. 1 ~ 9999. 4. 30울산우체국
승인 제40219호

HRDKorea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HRD KOREA 담당자 앞 T. 052-714-8195

4 4 5 3 8



절취선 ②

○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HRD Calender

11

2020년 11월 국가자격시험 일정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 제10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2차 추가 원서접수(11.5~11.6) · 제17회 농산물품질관리사 2차 추가 원서접수(11.5~11.6)	6	7 ·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 관리사, 호텔서비스사 1차시험 (11.7) · 제6회 수산물품질관리사 2차시험 (11.7)
8	9 · 제28회 청소년지도사 2차, 제35회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2차시험 원서접수(11.9~11.13)	10	11	12 · 기사 수시 제5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11.12~11.13) · 제22회 경비지도사 1, 2차 추가 원서접수(11.12~11.13)	13	14 · 기사 제4회 실기시험(11.14~12.6) · 제38회 문화재수리기술자 2차시험(11.14) · 제10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 보건지도사 2차, 제17회 농산물 품질관리사 2차시험(11.14)
15	16 · 제19회 청소년상담사 2차 원서접수 (11.16~11.20)	17	18	19	20 · 제29회 공인노무사 3차시험(11.20)	21 · 기사 수시 제5회 실기시험 (11.21~12.6) · 제22회 경비지도사 1, 2차시험 (11.21) · 제15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2차시험(11.21~11.22)
22	23	24	25	26	27	28 ·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 (11.28~12.13) · 제21회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1차시험(11.28) · 관광통역안내사 2차시험 (11.28~11.29)
29	30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이번 호에 실린 기사 중 가장 만족스럽고 유익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앞으로 <HRD KORE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사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혹은 이번 호 **HRDKorea**에 등장했던 인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일자리 관련 슬로건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세요. (예시)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1 HRD 파트너



절취선 ②

○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본 디자인은 영남대학교 디자인